

발달심리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과학철학적 탐색: 발달현상의 연구와 발달적 맥락의 의미*

황 상 민[†]

김 도 환

연세대학교

한국사회에서 발달심리학의 주된 연구대상은 무엇일까? 인간발달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의 발견일까 아니면 한국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변화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일까? 한국사회의 발달심리학은 한국인의 심리와 발달현상을 탐색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발달현상을 한국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탐색하였다. 이렇듯 일반적인 발달현상을 한국인을 통해 연구하면서, 한국인의 행동과 사고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것은 특정 사회 속에서 발달심리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면서 어떤 연구활동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발달심리학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는 발달적 변화나 발달 현상은 그것이 일어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인의 발달 내용과 속성에는 한국사회라는 맥락이 작용한다. 실험실 맥락만을 고집하였던 한국심리학의 전통적인 연구를 고려해 본다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달 현상을 탐색하려는 노력은 발달심리학 연구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전통적인 심리학 연구에서 채택되어 왔던 변인 중심적 접근보다, 각 개인을 조직화된 전체로 보고 그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살펴보려는 개인 중심적 접근의 도입이다.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되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 연구문제와 내용이 맥락 속에서 어떤 타당성을 가지는가를 고려하는 발달심리학의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발달심리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롭게 재고시킬 것이다. 또한 이런 변화의 과정은 발달심리학 연구가 한국인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발달문제를 해결하고 또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발달적 변화, 발달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 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발달심리학이 추구해왔던 연구 방향과 연구의 타당성을 과학철학의 입장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발달심리학 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과학의 틀로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연구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심리학은 한국사회 속의 한국인이라는 특수한 경위를 무시하면서, 연구방법의 객관성을 통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을 탐구하려고 했으나, 이것은 결국 심리학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이런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심리학자가 한국인의 삶의 문제를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 교신저자 : 황 상 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swhang@yonsei.ac.kr

한국 사회 속의 발달심리학 연구

한국 사회에서 발달심리학 연구의 성격과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이 분야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일차적 작업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현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철저한 자기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발달심리학이라는 분야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가? 한국사회에서의 발달심리학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바로 그 일을 해왔던 심리학자의 자기 평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① 한국의 발달심리학이 아직 양적으로 저조하고 질적으로 미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첫째로 발달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적은데다가 발표된 논문의 대부분이 학사 또는 석사 학위 논문들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발달심리학도 학문의 진입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외국에서 연구된 것을 우선 받아들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연구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 그리고 거의 모든 대학이 발달심리학을 개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발달심리학과 관련 있는 학과들, 예를 들어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에서도 발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활발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심리학적 이론적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발달심리 분야의 학문적 지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발달심리학은 심리학의 소우주(小宇宙)인 바, 넓은 분야에 걸친 학문적 수련이 부담이 크기는 하나 학업을 마친 후의 취업 진로는 타 분야와는 비교도 안되리 만큼 전망이 밝다(강조는 인용

자에 의한).

②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하는데 있어 점차 명백해지는 것은 발달심리에서 연구되는 문제들이 행동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즉, 발달심리학으로 향하였던 심리학 내에서의 인접 분야 및 다른 행동과학 분야로부터의 영향력이 그 방향을 바꾸어 역류(逆流)할 전망이 보인다는 것이다(강조는 인용자에 의한).

위의 내용들은 분명 발달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이 사회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과 기대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위의 인용문이 나온 시점이다. ①은 1982년의 주장(서봉연, 1982)이고, ②는 1979년의 글(이선인, 1979)이다. 지금부터 대략 20년 전에 한국의 발달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연구활동과 연구문제들이 행동과학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발달연구들이 인접 학문분야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대는 단지 기대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2003년 현재의 한국 발달심리학은 여전히 20년 전의 상황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으며, 심리학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이나 사회적인 기여 역시 그리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¹⁾

1) 본 논문의 문제제기는 그동안 한국의 발달심리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무시하거나 매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척박한 학문적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한국사회 속의 발달심리학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반성과 점검의 계기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장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한국적 발달심리학'의 모색이라는 저자들의 주장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

발달심리학의 연구자들은 심리학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학, 교육학, 가정학, 사회복지학 또는 간호학 등 인간행동과 심리의 변화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까지의 다양한 연령 수준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그 연구의 내용은 ‘학문의 진입 단계를 벗어나’ 우리 현실에 적합한 연구문제와 이론들이 산출되는 수준은 아니다. 어찌면, 발달심리학의 연구 내용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루어졌지만, 각기 다른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발달심리학을 수입하여 각자 알아서 사용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까?²⁾ 이 문제는 단순히 발달심리학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심리학의 영역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발달적 연구의 학문적,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이런 의문은 한국사회에서 발달심리학의 연구가 필요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발달심리학의 연구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며, 동시에 발달심리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심리학 연구의 목적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발달심리학이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여전히 흥미한 위치를 점하게 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으라면, 첫번째 ‘발달심리학=아동

심리학’³⁾이라는 일반적 생각이다(Cairns, 1998; Parke, Ornstein, Rieser, & Zahn-Waxler, 1994). 이것은 교육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분야에서 발달심리학의 내용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연구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발달현상을 아동기에 국한하여 탐색하거나 또는 아동기와 다른 시기와의 연령적인 차이를 탐색하는 것이 발달심리 연구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황상민, 김도환(2001), 김정운(2000)에 잘 나타나 있다.

둘째 이유는 위의 서봉연의 언급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 사회의 인간발달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이나 연구문제를 찾지 못하고, 외국(주로 미국)의 발달심리학 이론을 수입하는 것에 급급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비단 발달심리학만의 문제는 아니며, 아마 한국 사회에서 사회과학이 처한 공통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⁴⁾ 한국인의 발달과정과 발달현상이 미국인의

2) 이러한 질문은 결코 유폐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 사회의 모든 지성인은 뻔한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권위를 상대화시키고, 다른 어떤 사람이 감히 몰으려 하지 않는 그 같은 몰음을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충격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반대 입장을 토의하지 않고 있는 입장은 모두 빈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다렌돌프, 1993)

3) 물론 발달심리학 교과서를 보면, 이러한 진술이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종래에는 발달이란 용어가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 수태에서 아동기 내지 청년기에 이르는 상승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쓰여져 왔으나, 근래에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청년기 이후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하강적 변화까지도 포함한다.”(서봉연과 이순형, 1983) 하지만 저자들은 교과서의 정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평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달심리학 연구논문 458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달심리학 관련 연구들은 압도적으로 아동기와 유아기에 치중되어 있다(전체의 73.8%). 성인기 이후의 연구라고는 35편에 불과한데, 이것도 10편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를 제외하면 불과 26편(전체의 0.05%) 뿐이다(송명자, 1995).

4) “1991년 심리학회에서 주최한 심포지움 <심리학 연구의 활성화방안>에서 민경환 교수는 “우리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을 받아들이는데 급급해왔고 우리의 사회심리학을 정립하고 인식시키는데는 소홀해왔거나 역량이 부족했었다”며, 사회심리학자들의

그것과 같지 않고, 문화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인간발달의 문제가 다를 것이라는 인식을 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제3세계의 국가에서 초기에 어느 학문 분야나 학문활동이 이런 수입 단계를 거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단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스스로에 의한 문제제기와 탐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학문은 수입 활동 이상의 것으로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학문발전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들어 논의되기 시작한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식민성에 대한 자성적 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문제이다.⁵⁾

사회과학 이론에서의 식민성은 문화에서의 식민성이 그러하듯이, 미국 혹은 서구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이론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현실은 언제나 이론의 적용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심지어 자신이 목격하고 관찰할 수 있는 사회현상은 노골적으로 무시되기도 한다. ... 해방 이후 사회과학계에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분석력보다는 영어 구사능력, 즉 프란츠 파농이 말했듯이 모국의 언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가, 모국의 이론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여 소개하는가가 학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김동춘, 2000).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오늘날의 현상을 보았을 때 한국의 심리학계는 우리 문화와 접목된 심리학을 구성하는 노력과 성과를 상당히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이 몇몇 사람 중심의 개인적 활동에 머물고 있었다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한규석, 1999)

- 5)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논의는 조혜정(1995, 인류학), 한규석(1999, 사회심리학), 김영민(1996, 문학), 김정근(1999, 문헌정보학) 등을 참고하라.

한국 심리학의 경우에도 이러한 반성들이 제기되고 있다.⁶⁾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리학은 인문 사회과학적 속성을 띄기보다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보편적인 인간행동의 원리를 탐색한다는 모호한 주장으로,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이 컸다고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은 한국의 심리학자들 뿐 아니라 사회과학자 일반에게 외면할 수 없는, 동시에 감정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만드는 언급이다.

우리는 우리를 특수하게 보지 못하고, 미국을 특수하게 보지 못한다(탁석산, 2000). 그 결과 개별 존재하지 않고 ‘공허한’ 일반 이론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의 심리학 연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든 심리학 개론 강의의 첫 시간에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는 정의를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주장할 때면, 심리학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행동과 사고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사고를 연구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심리학 연구는 반드시 외국의 권위 있는 이론을 수입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연구 문제를 제기해야 했으며, 또한 외국의 참고문헌이 붙어 있어야 했다. 따라서, 외국에서 선례가 드문, 우리의 개별적 경험에 기반한 연구는 이론적 배경이 분명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며, 웬지 과학적 심리학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⁷⁾

- 6)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를 가지지 못한 사회, 자신의 사회를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회를 식민지적”(조혜정, 1995)이라고 부른다면, 한국의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심리학 수준이 식민지적이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한규석, 1999)

- 7) “우리는 아직까지도 미국 심리학이 마치 한국 심리학의 대사형(大師兄)이라도 되는 듯한 착각 속에서

셋번째의 이유는 바로 발달심리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발달심리학의 연구대상을 ‘인간 마인드⁸⁾의 형성과 변화과정’이라고 정의할 때(황상민, 김도환, 2001), 곧장 직면하게 되는 질문은 ‘과연 마인드가 무엇인가’이다. 즉, 마인드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은 그 자체의 속성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이선인(1979)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발달심리에서 연구되는 문제들이 행동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라는 전망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발달심리학의 어떤 문제들이 행동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인가의 질문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던 ‘발달심리학=아동심리학’ 그리고 ‘미국심리학=한국심리학’이라는 가정들을 무작정 받아들이면서, 한국사회에서 발달심리학이 수입학문의 하나로만 남게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발달, 아니 마인드의 변화에 대한 탐색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연구문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DNA 유전자 복제를 통한 인간복제가 가능하다고 할 때, 여기서 ‘인간’이라는 표현에는 인간의 신체적인 조건과 함께 심리적인 특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환상이다. DNA 복제로 나타나는 것은 체세포라는 신체 기관의 재생산 과정에 대한 복제이지, 심리적 특성(성격, 지능, 행동특성 등)을 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자 복제를 통해, 특정 DNA의 염기서열과 특정 심리적 특성과의 매칭(matching)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심리적 특성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나 분자 구조처럼 분석되거나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상황과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학 연구는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추구하였듯이, 물질의 기본 원소나 원리를 파악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 이미 20세기 초기의 과학 발전 과정은 이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원자와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 내면서 사람들은 이제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원자를 파악했으므로 더 이상의 자연의 사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결코 충족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자연과학의 탐구대상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이 드러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달심리학의 연구문제는 바로 인간 행동과 사고과정이 새롭게 드러나고 이것들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인간 신체 구조의 복제나 변화과정이 아니라, 바로 심리 현상의 출현과 그 현상의 변화과정이다. 만일 그렇

진한 형제애를 느끼며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심리학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가문의 발전인 양 의기양양해 하며,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기법이 인기를 끌게 되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져다 쓴다 (한국인 특유의 한 집안 의식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심리학사를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나날이 암송하고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강자와의 동일시라고 하는 헛된 미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미국 심리학이 무너진다고 해서(물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한국 심리학이 덩달아 절단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심리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한국 심리학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뼈아프게 깨달아야만 한다.”(김동직, 미간행)

- 8) 본 논문의 문제제기를 염두에 둘 때, mind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mind에 부합하는 적절한 한국말이 마땅치 않기에 일단 그대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지 않았다면, 발달심리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남지 못하고, 발생학이나 생물학의 한 부분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Cairns, 1998). 이렇게 본다면, 발달의 과정, 즉 마인드가 형성 되는 것을 마치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속성이 각기 다른 맥락과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 행동과 사고 특성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볼 것인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바로 발달심리학에서 변화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이며,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의 질문이다. 또한 이는 과학적 이론이나 방법론의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관점의 문제이다(탁석산, 2000).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발달심리학이 발전할 수 없었던 문제의 핵심은 한국 사회를 발달적 맥락(developmental context)으로 보면서, 이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발달현상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탐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탐색은 심리학의 주요 연구활동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발달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발달적 관점에서 찾는 것은 너무나 복잡한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가능한 진공처리된 실험실 속에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발달을 보고자 하는 소망만이 드러날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년의 세월 속에 한국의 발달심리학은 대학의 실험실에 잘 보관된 냉동인간처럼 남아 있었던 것이다.

발달적 맥락과 변화의 의미

현대에 들어와 심리학이 인간의 행동에 대해

내린 가장 중요한 결론 중의 하나는 바로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어나는 ‘맥락’(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황상민, 2000). 최근 들어, 심리학자들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개별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탐색하려고 노력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대심리학은 서구의 사상을 바탕으로 서구인들이 익숙한 인간관, 행위에 대한 설명방식으로 이루어진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지식체계일 뿐이다. 따라서 심리학의 제 개념을 세상을 파악하는 분류체계로서 비유한다면, 대상을 어떠한 목적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류체계가 나타나며, 목적이 다른 두 개의 상이한 분류체계는 우열을 비교할 수 없게 된다. ... 우리는 이 같은 분류체계가 분류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구성된다고 믿지만,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의해 대상의 속성이 전혀 다르게 파악되고 있음을 심리학의 많은 연구들이 보이고 있다. 즉, 이 분류체계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문화적 구성물(cultural constituents)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한규석, 1999).

하지만 발달심리학자가 발달이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려고 하면, 곧장 그러한 발달현상이 일어나는 ‘맥락’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만일 실험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와 맥락을 실험실로 한정시키고 다른 모든 변수가 통제되며 연구자의 관심이 변수 A와 변수 B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이 문제에 대한 과학철학적, 방법론적 해결책이 유명한 분산분석(ANOVA)이다.⁹⁾¹⁰⁾ 물론 학문적 의사

소통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분산분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구 도구가 연구 작업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 때문에, 그 ‘도구의 한계’가 ‘인식의 한계’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ogoff, 1998).

Barbara Rogoff(1998)에 따르면, 분산분석은 미국 발달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론적 도구이다. 분산분석의 기본 가정 중의 하나는 발달 현상을 서로 독립적인 요인들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분산분석의 틀이 발달심리학에 적용되면, 맥락이란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변수로서 간주된다. 하지만 실제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발달적 연구의 대상은 실험심리학에서처럼 조작되거나 통제되기가 극히 힘들 뿐더러, 개체의 행위가 사회적인 맥락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따로 분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발달현상은 하나의 조작 가능한 변수로 구분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화 그 자체는 단순히 어떤 한 변인에서 다른 변인으로의 변화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발달심리학 연구들은 실험 아동심리학의 좁은 틀에서 이 문제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발달적 맥락은 존재하지 않으며, 발달현상은 단지 아동/청소년/성인기의 사람들이 보이는 특정 수행능력이나 평가 변인으

로 표현될 뿐이다. 하지만, 지능이나 성격 또는 자아개념 등과 같은 심리적 구성체(psychological construct)의 발달이란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역할이 변화되면서(transformation of participation)”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면, 개인의 발달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차라리,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한 그 개인이 그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서 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한다(Rogoff, 1998).

발달의 연구에서 맥락의 문제는 비단 연구 방법 뿐만 아니라, 전술(前述)한 두 가지 이유와도 직접 맞물리게 된다. 외국의 아동 이론이 한국에 수입될 때, 맥락이 제거된 아동연구 결과가 얼마나 보편적일까? 미국에서 정립된 인간발달 이론이 한국 사회에서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것은 특정 이론의 보편 가능성을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인간의 발달현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달라지게 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서부를 달려가는 개척자 같은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사회와 ‘타인과의 조화로운 융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능한 집단의 틀 속에서 맞추어야 하는 개인’이 이상적인 인간 모델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동일한 발달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마치 샘물과 바닷물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아동 발달에서 사회나 문화적 영향이 개입된다는 증거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쌓여 있다(Snarey, 1985; 이수원, 1990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영아-부모 애착 연구만 하더라도

9) 과학적 심리학이 근거하고 있는 과학철학적 근거와 그 공헌점에 대해서는 이정모(1995)의 글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10) 물론 “심리학이 지난 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하는데는 자연과학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실험법의 채용이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대상을 탐구함에 있어서 자연과학의 방법론에 지배되어 탐구주제를 택하여 왔기 때문에 발전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널리 드리워졌다. 가장 그림자가 짙은 영역은 삶의 이해일 것이다. 삶은 사람이 환경 속에서 전개하여가는 생활의 모습이며, 이는 문화를 떠나서 이해될 수 없다.”(최상진, 한규석, 2000)

도, 미국에서는 57%의 영아가 안전 애착을 보임에 반해, 독일에서는 33%만 보였다. 또한 국가간 차이뿐만 아니라 계층간 차이, 미국내의 인종간 차이도 보고되었다고 한다(Tulkin & Kagan, 1972; 권오식, 곽금주,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런 차이들을 동일한 주제나 연구문제라는 입장에서 하나의 틀로 단순히 구분하려고만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인간 발달의 연구는 이상적인 선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발달의 모델을 쫓아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작업이 되고 만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쫓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심리학 연구에서 아니 인간발달에서, 발달현상이 일어나는 **맥락은 발달적 연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고의 대상(object of thought)’이 아니라, 발달적 연구를 드러내는 ‘사고 그 자체(thought itself)’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발달현상이나 발달내용 그 자체로서 맥락을 드러내면서, 발달적 연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변인의 조작과 그 변인들의 연결에 기초한 발달현상의 탐색에 익숙한 연구의 틀이나 방법론으로 쉽게 포착(捕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개인이 세계 속에 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일련의 상황들 ‘속’에 산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속’의 의미는 동전이 주머니 속에 있다든지 페인트가 강통 속에 있다고 말할 때의 의미와는 다르다. ‘속’의 의미는 상호작용(interaction)이 한 개인과 사물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진행됨을 뜻한다. 상황과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하나의 경험이란 언제나 한 개인과 동시에 그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교호작용(transaction)**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환경이란 그가 어떤 화제나 사건에 대해 더불

어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야기되어지는 대상 또한 상황의 일부이기도 하며, 그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그가 읽는 책, 또는 그의 실험 자료들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란 개인의 욕구, 욕망, 목적과 상호작용하는 어떠한 조건도 이에 해당되며, 경험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능력도 다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설사 그가 공중누각(空中樓閣)을 짓는 경우에라도 그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지어내는 대상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다(Dewey, 1938; Altman & Rogoff, 1987에서 재인용).

서구 심리학의 전통에서 이러한 맥락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되었다. 국내 심리학계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한규석, 1999). 그러나,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지향하는 우리의 풍토에서 맥락의 문제는 과학철학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발달심리학이 한국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맥락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발달적 변화는 발달현상이 일어나는 맥락과 결코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의 발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맥락이 한국인의 발달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발달적 맥락과 발달현상에 대한 이해야말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탐구되어야 하는 발달적 변화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인 것이다.

발달적 맥락과 발달적 변화의 속성

발달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맥락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첫번째 단계는 먼저 “발달적 변화(developmental change)”가 과연 무엇인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변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변하지 않는 것’을 탐색해왔던 기존 심리학 방법론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막연하게 보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를 구체화하는 하나의 가능성 혹은 예로서 Willis Overton(1998)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Overton은 발달 연구에서 관계와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달적 변화의 내용을 표현적·구성적 행동(Expressive-Constitutive Behavior)과 도구적·의사소통적 행동(Instrumental-Communicative Behavior)으로 나누고, 이들 각 행동들이 각기 서로 다른 발달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발달적 변화는 그 속성에 따라 구조적이고 변형적 변화(Transformational Change)와 변산적 변화(Variational Change)로 드러난다.

여기서 변화의 속성을 나타내는 변형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질적 변화에 해당하고, 변산적 변화는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 구분은 이미 발달심리학계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익숙한 틀이다. 그러나 발달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변화의 내용 때문이다.

Overton(1998)에 따르면, 발달적 변화의 내용은 크게 표현적 행동과 도구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탐색 대상이 되는 발달현상을 나타내는 행동의 배후에 어떤 구조나 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찾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일반적인 문제해결 행동의 변화라는 발달현상에 대해,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가 표현되고 또 인지구조가 변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도구적·의사소통적 행동이란 ‘발달 현상이나 행동은 그것이 실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나’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즉, 유기체의 행동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기체의 내부보다는, 유기체가 어떤 목적에서 그 행동을 습득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Skinner의 행동주의론에 기초한 많은 학습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애착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전통적인 애착연구의 경우, 영유아와 양육자 사이의 긴밀한 정서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에는 ‘애착’이라는 어떤 심리적 구조가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한다(표현적 행동의 관점). 하지만 애착 행동을 ‘애착’이라는 심리적 구조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유아가 부모의 행동패턴에 맞추어 자신이 살아남기에 가장 적절한 행동방식을 형성해낸 결과로 파악한다면, 이것이 바로 도구적 행동의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애착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 어떤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차이를 가져

표 1. 발달적 변화에 대한 분류(Overton, 1998)

		발달의 속성	
		변형적(Transformational) 변화	변산적(Variational) 변화
발달적 변화의 내용	표현적·구성적 행동	㉠	㉡
	도구적·의사소통적 행동	㉢	㉣

표현적 행동과 도구적 행동은 각기 다른 발달현상을 나타낸다. 표현적·구성적 발달행동이란

오게 한다.

애착구조(특히 안정된 애착구조)의 형성을 중

요한 문제로 보는 표현적 행동의 관점에서는 안정된 애착구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찾고,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어떤 문화권에서 안정된 애착패턴이 적게 나타났다는 것은 곧 그 문화권의 육아환경이 열악함을 뜻하며, 따라서 발달심리학자는 계몽과 지원을 통해서 안정된 애착을 많이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도구적 행동의 관점에서는 애착행동의 목적은 결국 아이의 건강한 생존과 성장이므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면(애착행동 유형에는 상관없이) 그 아동은 성공적으로 애착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도구적 행동의 관점에서 애착에 실패했다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한 생존이 위협해졌을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문화권에서 안정된 애착패턴이 적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 문화권에서는 안정된 애착패턴이 아닌 다른 유형의 애착패턴이 아동의 생존과 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모든 발달적 변화의 현상은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이 상호 관련되어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발달심리학적 연구들은 주로 ㉔ 영역(변산적 변화, 표현적·구성적 행동)에 집중되어 왔으며, 극히 제한적으로 ㉕ 영역(변산적 변화, 도구적·의사소통적 행동)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루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에는 방법론적 제약¹¹⁾ 등의 이유

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발달현상이 가지는 도구적 의미와 변형적 변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한국 발달심리학 연구들이 그 범위를 ㉔, ㉕ 영역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발달심리의 연구주제나 현상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발달현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연구 문제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의 추론이나 변인들 간의 차이를 발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현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명확하게 그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맥락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발달현상을 연구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연구 방법론의 전환도 수반하게 된다. 사실 한국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발달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발달연구의 방법론을 모색하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인의 조작과 변산적 변화에 초점을 둔 기존의 발달 연구에서 나아가, 변화의 형태를 찾고 도구적·의사소통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에는 분명 새로운 연구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방법론적 탐색에는 간헐적으로 언급되어왔던 질적 연구방법¹²⁾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면서, 방법론적인 틀을 너무 협소하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이 연구문제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면서 심리학을 현재의 모습으로 가꾸어 왔다. 심리학의 연구가 의존하고 있는 논리실증주의는 과학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그 취약점이 충분히 드러났다.”(한규석, 1999)

12)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은 기존의 환원론적·객관주의적·정태적 방법론에 대항하여, 인간과 사회를 보다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주관적 의미 부여 과정에 주목하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 하지만 질적 접근법이 주관주의적 지향을 강하게 갖는다고 해서 객관적 수준의 사회 현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볼 수

11) “학회지의 발표논문들 중에서 대안적 인식론에 바탕한 연구는 전무하며, 질적 연구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 천편일률적으로 실험과 조사에 의한 자료를 양적으로 처리한 것들이다. 이는 국내심리학계가 방법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심리학이 자연과학을 모델로 삼아 발달해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모든 방법론은 연구 주제에 종속되는 것이지, 방법론 자체에 따라 특정 연구가 우월해지거나 또 정당성을 가진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연구 방법론이 아니다. 방법론이란 문제의식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적당한 것으로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요인분석이건, 심층면접이건, 기호학적 해석이건 간에, **방법론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 문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김정운, 한성열, 1998).

발달심리학 연구의 타당성

인간 발달의 연구에 맥락이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하게 됨에 따라, 발달심리학 연구의 방향은 발달현상의 변형적인 측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문제와 어떤 연구활동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정한 연구 주제에 대해 맥락을 고려한 연구작업이 그렇지 않는 연구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 문제의 출발점이자 해답은 흥미롭게도 바로 연구주제, 즉 연구 토픽(topic)에 달려있다.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발달적 변화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바로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발달현상을 탐색하는 것이다.¹³⁾ 전통적으로 발달심리학

의 연구들은 인지발달, 성격발달, 사회성발달 등의 영역 구분이 있고, 각 영역에 따라 상이한 이론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서봉연, 송명자, 1988). 그러나, 발달현상을 연구 주제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특정 영역에 속하는 연구변인을 중심으로 발달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발달적 현상이 일어나는 개별 인간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발달현상은 각 개인 내에서 또는 개인 간의 차이로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며, 연구주제는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정 변인이 개인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며, 변인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탐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변인이 개인에게서 어떤 적응적(도구적·의사소통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어떤 내적 심리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기존의 발달심리학 연구를 변인-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이라고 한다면,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각 사람들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려는 입장을 사람-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이라 할 수 있다(Gjerde, 2001). Gjerde(2001)에 의하면, 현재 대부분의 발달심리학 연구는 변인-중심적 접근이며 그 특성과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 구성개념(construct)의 차원에 따라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정렬시킨다.
- ▷ 연구되는 특성의 집합(aggregate of traits)으로 개인을 본다.
- ▷ 표본에 걸쳐 나타나는 변인간 관계에 연구의 초점이 있다.
- ▷ 성격 차원의 기본 범주를 확인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 ▷ 종단연구에 적용될 경우, 시간에 걸친 변인간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예) “아동기의

는 없다. 그 문제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 개개인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지, 그 접근법 자체에 내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비약하라는 말이다.”(박재홍, 1999)

13) 이러한 주장은 인간발달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연구 분석의 단위로 행위(activity)나 사건(event)에 주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Rogoff, 1995).

수줍음은 성인기의 우울증을 예측할 수 있는가?”

이와 비교해서, 사람-중심적 접근이란 각 개인 간의 차이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 차이로서 드러내려고 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발달현상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질적이고 변형적인 변화를 그려내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려는 초기 심리학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사람-중심적 접근의 특성과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¹⁴⁾

- ▷ 개인을 조직화된 전체(organized whole)로서 본다.
- ▷ 발달심리학의 연구 변인들은 따로따로 고립된 상태로 연구될 수 없다.
- ▷ 사람 그 자체의 발달에 초점이 있다.
- ▷ 비슷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을 확인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 ▷ 종단연구에 적용될 경우, 동질적(homogeneous) 집단의 발달적 경로(developmental path)를 연구하는 것이다. (예) “어릴 때 충동조절 문제를 보인 아동은 이후 어떠한 발달적 궤도를 보일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져 왔던 발달심리학의 연구들은 발달적 변화의 내용과 발달적 변화의 속성을 한국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구체화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말은 연구의 주제나 내용이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발달과업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향후 한국 발달심리학 연구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과 발달현상을 심리학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한국인의 발달적 맥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심리 발달적 변화가 각 개인에게서 어떤 형태를 띄는지를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②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발달현상이나 발달적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주제 중심으로 연구를 설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연구의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생태학적 타당도가 연구 변인에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면서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해 왔던 심리학자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며 그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Fabes, Martin, Hanish, & Updegraff, 2000).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세기에 발달심리학이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¹⁵⁾

“21세기 발달심리학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Fabes 등(2000)은 현재의 발달심리학은 학문 외적인 다양한 요구로 말미암아 조만간 엄청난

14) 이러한 사람-중심적 접근은 단지 전통적인 연구방법론에서의 변인을 사람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는 Q 방법론과도 관련이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홍규(1996)를 참고하라.

15) “심리학적 지식의 내용은 방법론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문사회과학 중에서 유일하게 방법론만으로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려 했던 해묵은 객관주의, 실증주의 심리학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다가오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살아 남을 수 없다. ... 심리학 이론의 구성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 가능한 방법들 중 하나에 불과한 통계학적 절차만을 심리학의 유일한 방법론으로 간주하며 이론적 토론을 “서평”(review) 수준으로 폄하하며 통계 수치가 포함되지 않는 논문은 학위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한국적 심리학하기”의 관행은 과학사적으로도 아주 특이한, 또한 매우 흥미로운 문화심리학적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김정운, 한성열, 1998)

난 변화들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런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들은 지난 100년 간의 발달심리학을 개괄하고 나서, 현재까지 연구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생태학적 타당도 이외에 새로운 기준들(new criteria)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4가지 타당도가 발달심리학 연구를 평가하고 권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새로운 첫번째 타당도는 발생 타당도(incidence validity)이다. 특정 연구가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가의 정도이다. 두번째는 영향 타당도(impact validity)인데, 이는 연구 토픽으로 말미암아 아동이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정도이다. 세번째는 공감 타당도(sympathetic validity)이다. 이 타당도는 연구의 결과가 그 연구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주목 타당도(salience validity)를 언급하면서, 특정한 연구 토픽이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public awareness)의 문제가 바로 그 영역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타당성의 문제는 바로 한국 사회에서 발달심리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 발달심리학의 정체성을 찾는 길

“21세기 발달심리학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Fabes 등(2000)의 도전적인 주장을 한국사회의 발달심리학 연구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 방향과 작업을 그려볼 수 있다; 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제기되는 연구 문제, ② 맥락과 변화가 고려된 연구 설계, ③ 토픽을 중심으로 한 연구 전체의 유기적 통합, ④ 전문가가 아

니라, 교양인이려면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의사 전달, 그리고 ⑤ 이를 통한 한국 발달심리학의 사회적 책임. 이런 작업들을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이상적인 모형을 언급하거나 가벼운 차기(稚氣)가 아니다. 만일 발달심리학이 이런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사회 속에서 발달심리학 그 자체의 존속 가능성과 타당성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심리학적 전통에 익숙한 연구자들에게 발달적 관점과 발달 현상의 맥락에 대한 강조는 막연하고 미숙한 연구 작업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발달심리학 연구가 우리 사회에서 그 존재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연구가 얼마나 정교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맥락에 적합한지(story-telling)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¹⁶⁾

인간사회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사회과학은 해당 사회의 정신과 문화의 깊이, 즉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물음과 해결을 위한 행동의 수준만큼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김동춘, 1990).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 발달심리학의 발전은 실증주의적 엄밀함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적응하는 각 인간이 가지는 발달

16) Bronfenbrenner의 한탄이 21세기 한국에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새로운 관점을 취하게 된 동기는 근래에 와서 인간발달 연구가 과학의 진보에 발맞추어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이 눈에 띄는 것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너무 과학적 엄밀성을 강조한 나머지, 연구 설계상으로는 훌륭하게 고안된 실험이면서도 흔히 연구 범위는 한정된 관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존하는 발달심리학의 많은 부분이 “낮선 상황(실험실)에서 최대한의 짧은 시간동안(실험 기간) 낮선 성인들(연구자들)에게 보여주는 아동의 이상한 행동(실험에 대한 반응)에 관한 과학”이라고까지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Bronfenbrenner, 1977)

적 현상과 발달적 주제들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과 적절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4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심리학은 ‘학문적 타당성’을 ‘연구기법’이나 ‘방법론’으로 바꾸어버려, 한국의 인간문제를 기계적인 방식으로 다루어 왔고, 이는 결국 발달심리학자가 한국 사회 속의 한국인의 문제가 아닌, 실험실 속의 낯선 사람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심리학의 연구 주제가 사소해지면서 지성사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게 되었다”는 Robinson(1995)의 지적은 우리의 현재 상황에도 적합한 말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이나 주장은 그리 새로운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기존에 제안된 바 있는 몇 가지 주장들을 한국 사회라는 발달적 맥락 속에서 발달심리학 연구로 수행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조망(perspective)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어떤 연구주제들이, 어떤 연구 방법을 통해, 어떤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발달심리학 연구를 수행해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¹⁷⁾

17) 여기에서, 한국적 발달심리학을 주장하고 그 자체에 관한 논리를 세우는 것보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적 발달심리학에 대한 주장과 분석은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적 발달심리학하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천이고, 한국적 발달심리학에 대한 주장과 분석은 방법적 검토이다. 방법적 검토 그 자체도 이론이다. 이론적 기초가 튼튼해야 실천도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적 발달심리학 운동은 집단적 노력이 요구되는데, 방법론적 검토는 집단적 노력의 방향과 근거를 제시해 준다. 교육을 잘하기 위해 교육학을 연구해야 하듯이, 한국적 발달심리학을 참되게 하기 위해 한국적 발달심리학 그 자체

발달심리학을 심리학의 소우주(小宇宙)라고 할 때(서봉연, 1982),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20년 후의 한국의 발달심리학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식, 광금주 (1999). 2000년대 발달심리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2000년대 심리학의 전망과 과제*. 자료집, 65-85.
- 김동직 (미간행). 전환기의 심리학.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홈페이지 문화심리학 관련자료 (<http://psy.korea.ac.kr/Gradu/GINFO/cul/Turn.htm>).
- 김동춘 (2000). 한국 사회과학에서의 탈식민의 과제. 비평, 가을호. 비평이론학회.
- 김영민 (1996).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서울: 민음사.
- 김정근 (1999). 한국 사회과학에서 탈식민성 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13(1), 187-22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김정은 (2000). 봉어빵과 아동. *문화와 사람*, 2, 223-243. 서울: 사계절.
- 김정은, 한성열 (1998).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 김홍규 (1996). Q 방법론의 유용성 연구. *주관성 연구*, 1, 15-33.
- 다렌돌프, 랄프 (1993). 지성인과 사회: 20세기에서
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과학을 잘하기 위해 과학철학과 과학사회학을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이종각, 1992에서 ‘교육학’이라는 단어를 인용자가 ‘발달심리학’으로 교침)

- 의 ‘어릿광대’ 역할. *현상과 인식*, 17(2), 59-62. 한국인문사회과학원.
- 박재홍 (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257-296.
- 서봉연 (1982). 발달심리학의 연구동향과 직업전망.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심리학의 사회적 기여*, 자료집, 54-78.
- 서봉연, 송명자 (1988). 발달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미국과 유럽의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 1-19.
- 서봉연, 이순형 (1983). *발달심리학: 아동 발달. 중앙적성출판사*.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이선인 (1979). 발달심리학의 회고와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2, 308-313.
- 이수원 (1990). 내면화: 사회적 지식의 형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9(1), 54-73.
- 이정모 (1995). 과학적 심리학의 이론적 기초: 기본 가정의 분석. 동계 심리학 연구 세미나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한국심리학회.
- 이종각 (1992). *한국교육학의 논리와 운동*. 문음사.
- 조혜정 (1995).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I: 바로 여기 교실에서*. 서울: 또 하나의문화.
-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 탁석산 (2000).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 한규석 (1999). 한국적 심리학의 전개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하계 심포지움: 문화와 심리학*. 자료집.
- 황상민 (2000). *사이버공간에 또다른 내가 있다*. 서울: 김영사.
- 황상민, 김도환 (2001). 발달심리학의 발달과 심리학적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
- Altman, I. & Rogoff, B. (1987). World view in psychology: Trait, interactional, organismic, & transactional perspectives. In D. Stokols & I. Altman (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psychology*. NY: John Wiley & Sons.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29.
- Cairns, B. R. (1998). The making of developmental psychology.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5th ed.)*, 25~106.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Fabes, R. A., Martin, C. L., Hanish, L. D., & Updegraff, K. A. (2000). Criteria for evaluating the significance of developmental research in the 21 century: Force and counterforce. *Child Development*, 71 (1), 212~221.
- Gjerde, P. F. (2001). *A study of developmental types from preschool in young adulthood*. Presented "Lives through time in cultural context" Institute for Human Behavior of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Overton, W. F. (1998). Developmental psychology; Philosophy, concepts, and methodology.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5th ed.)*, pp. 107~188.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arke, R. D., Ornstein, P. A., Rieser, J. J., & Zahn-Waxler, C. (Eds.) (1994). *A century of developmental psychology*.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obinson, D. N., 권정혜 외 4인 옮김 (1995). *현대 심리학의 체계: 비평적 개요*.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Rogoff, B. (1995). Observing sociocultural activity on three planes: Participatory appropriation, guided participation, and apprenticeship. In J. V. Wertsch, P. Del Rio, & A. Alvarez (Eds.), *Sociocultural Studies of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sychology.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John Wiley & Sons, Inc.

1 차원고접수 : 2003. 3. 20.

수정원고접수 : 2003. 5. 14.

최종게재결정 : 2003. 5. 21.



Rogoff, B. (1998). Cognition as a collaborative process. In W. Damon (Series Ed.), D. Kuhn & R. S. Siegler (Vol. Ed.), *Handbook of child*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3. Vol. 22, No. 1, 1-17

Developmental context is not an object of thought, but a thought in itself

Sang-Min Whang

Dowhan Kim

Yonsei University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in Korea has limited itself in the area of child studies, so that it could not identify the developmental phenomena in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This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identity of developmental psychology in Korean society which seeks to scrutinize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mind in the society. The developmental change means the integrated phenomena of the content and nature of developmental change. The content of developmental change is intrinsic to the context in which the change occurs, so that the developmental research has to deal with the developmental issues in Korean social context. The framework to study the developmental phenomena in context has set up by distinguishing the content and nature of developmental change. It is also to look for the person-centered approach rather than to pursue the variable centered approach. If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has to take its place in Korean society, it will be dependent upon not by the methodological rigidity, but by the social impact validity.

Key Words :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context, Socio-cultural context